

# 예수는 신이다

요한복음 1:1

2022년 6월 5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올해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을 훌륭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3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 23문: 왜 구속주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한 본성 때문에 그의 순종과 고난은 완전하고 효과적일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견디면서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개

우리는 지난 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대표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다윗도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죄와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아담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 해 후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도 맞섰습니다. 그때 인간대표는 사탄이 아닌 악한 인간의 적과 대면하고 있었다. 고맙게도 David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승리로 노예제도와 죽음의 위협에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승리를 대신하여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자로 싸웠습니다. 사탄과 죄와 사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아담과 다윗이 어떻게 인간 대표자로 봉사했는지를 보면 예수의 성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표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진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메시아 예수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볼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고 각 구절을 읽은 후에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영원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살아 있는 말씀으로 묘사한 것을 들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을 들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이 한 문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며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와 진리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예수는 신이요, 신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별개의 인격체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삼위일체의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뉴욕에 친척이 있다고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삼촌 Bob을 만나고 그와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을 봅시다.

2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은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속자요 하늘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7-18에서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을 보십시오.

17 "내가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18 나는 살아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보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성한 메시아만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성경의 이 모든 다른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을 봅시다.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모두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를 포함하여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을 덮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과 2절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도 거기 계시다고 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1:3.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6.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사이에 틈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기 1:20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물고기와 다른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하늘이 온갖 새들로 가득 차게 하라...”

창세기 1:26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는 말을 했다. 만물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봅시다.

14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8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5:20-21에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젊은이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는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신성모독이야! 신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48-50에서 다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48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두루 다니며 죄를 사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았습니까? 두 사건 모두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에 대한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Yaovi와 Kashif,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야오비, 카시프의 뺨을 때려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거 봤어? 야오비는 카시프를 때렸다. 야오비, 내 말 잘 들어. 당신을 용서합니다.

카시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야오비를 용서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Yaovi가 나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Yaovi를 용서할 수 없다. 카시프만이 야오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카시프는 야오비의 죄로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의 남자와 누가복음 7장의 여자를 용서하셨는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나 혼자만이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고 다시는 그 죄를 생각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도 “내가 구름 같이 너희 죄를 씻었다. 나는 아침 안개처럼 당신의 범죄를 흘렸습니다. 오, 내게로 돌아오소서.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돌아가셨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구름처럼 너희 죄를 쓸어 버렸다. 나는 아침 안개처럼 당신의 범죄를 흘렸습니다. 오, 내게로 돌아오소서.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 사함을 위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까?

로마서 10:9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는 주라’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나 훌륭한 도덕적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을 받고 거룩함 가운데 행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37절 "네가 만일 나보다 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 것이 될 자격이 없고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것이 될 자격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보다 그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신성한 특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만 속한 존귀와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25-26에서 일어난 일을 들어 보십시오.

25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매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26 베드로가 그를 끌어올리며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이다

베드로는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인간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11.

11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니라. 그리고 보물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복음 14:32~33.

32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쳤더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28:8~9.

8 "이에 저희가 두렵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니라.

9 그리고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인사하라! 그들이 올라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신 구절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51-59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몇몇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52 그들이 이르되 이제 너희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으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53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가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5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내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시니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너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겠지만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을 지킨다.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생각을 하고 기뻐하였도다 그는 그것을보고 기뻐했습니다.”

5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아직 오십 세가 되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은 아브라함을 보았나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9 이에 저희가 돌을 들어 돌로 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몸을 숨기사 성전에서 떠나가시니라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거와 현재 시제를 배웁니다. 58절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3-14을 보십시오.

13 모세가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되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예수께서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그를 처형하기 위해 돌을 들어 올렸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일랜드 밴드 U2를 아시나요?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리드 싱어는 Bono입니다. 보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적인 질문이 ‘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위대한 사상가나 위대한 철학자였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아들이거나 미쳤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삶이 어떤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신성한 이름 “I Am”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기도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예언하셨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신이었을까?

이 모든 일은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고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와 맹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가장했다면 그의 이웃들은 진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폐회 기도는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 폐회기도

골로새서 2:8-9

8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영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헛된 철학과 거창한 헛소리로 누구든지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9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에 거하시느니라



### 골로새서 3:1-3

- 1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늘의 진리를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에 앉아 계시느니라
- 2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 3 너희는 이 생명을 위하여 죽었고 너희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 골로새서 3:16-17

- 16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이 그 모든 풍성함으로 그대의 삶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가 주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 17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를 대신하여 하여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